

한국 인구 자연 감소 속도 빨라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였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자연감소'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인구감소가 2028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2020년 처음 시작되면서 전망보다 8년 앞당겨졌고, 그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1년 전(27만2,300명)보다 4.3% 줄었다.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하락했다. 가임 기간 동안 여성이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처음으로 10만 건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1~12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2,50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2만993건) 감소했다.



▲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1만2,800명(4.2%) 증가했다. 고령자 인구가 많은 만큼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 인구는 5만7,300명 줄었다. 1년 전(-3만2,600명)보다 2만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자연감소 규모는 2060년 56만명이지만 지금 속도라면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면, 수출 급증에 식품 생산량 1위 등극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라면이 한국 식품 생산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식품 생산량 1위 품목은 봉지라면·용기면 등의 유량면으로, 총 193만1천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231.1%나 급증한 것이다. 유량면의 2019년 생산량 순위는 13위였다.

수출이 급증한 것이 생산량 증가의 원동력이 됐다. 2020년 라면의 한국내 판매액은 1조5천620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줄었지만 수출액은 6억8천711만달러로 49.4% 늘었다. 이 덕분에 라면은 수출액 순위에서도 2019년 2위에서 2020년 1위로 올라섰다.

코로나19로 한국 밖에서도 소위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한국 라면은 한 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주목 받았다. 또 한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0년 아

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것도 K-라면 인기의 한 요인이 됐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짜파게티+너구리)가 미국 등 외국에서 큰 관심을 끌면서 한국 라면의 인기도 높아진 것이다.

유량면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식품은 탄산음료(186만9천t), 밀가루(182만4천t), 맥주(150만2천t), 설탕(142만6천t), 빵(133만1천t), 소주(131만5천t)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수출액이 많은 식품은 유량면 다음으로 기타 수산물가공품(3억1천551만달러)과 조미김(3억994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유량면의 2020년 한국 내 판매액은 11위 수준이다. 1위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3조6천526억원)이고 이어 빵(3조2천511억원), 소스(3조1천484억원), 커피(2조7천180억원) 등의 순이었다.

'월급쟁이' 월평균 임금 320만원

2020년 한국의 '월급쟁이' 들은 한 달에 평균 32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3.5%(8만원) 늘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8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3.9%, 85만~1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0.2%로 각각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근로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욱 벌어졌는데, 50대에서는 대기업 평균소득(687만원)이 중소기업(280만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히 컸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을 웃돌았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는 50대(197만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월평균 소득 163만원인 숙박·음식점업이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